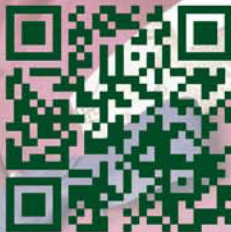
메트로 2015년 2월 17일 화요일 제3159호 www.metroseoul.co.kr

도우미 QR코드

"팔당에 땅 사러가자"

설 연휴 유용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

병원·약국

금융 피해 신고

가볼만한 곳

장보기(전통시장)

모바일게임(구글)

모바일게임(애플)

영화(CGV)

영화(롯데시네마)

영화(메가박스)

현대차 서비스센터

기아차 서비스센터

한국GM 서비스센터

쌍용차 서비스센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

귀성길 편안히 다녀오세요.

'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선고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이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청사를 내려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공무원시험 5급 헌법 추가

한국사 검정에 가점 부여

오는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또 모든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선발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5급에서 실시되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다양성·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기대했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2차 서류전형·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게 된다. 관련 법령 개정 후 수요조사를 거쳐 5~6월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필기시험을 치를 계획이다.

이러한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지도직 채용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아울러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제출로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3년에서 3년·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취득기준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시험 전일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또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적용 중인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도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담겼다. /정윤아기자

신용정보 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제' 시행

개인 신용정보 강화를 위해 신용정보기관 등에 대한 공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개인비밀을 업무목적 외에 누설·이용하거나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과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송병형기자

'땅콩회항 방지법' 추진

이언주 의원 법안 대표 발의… 5년간 회사복귀 금지 등 처벌 강화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과 같은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총수 일가나 친인척에게 최대 5년 동안 이사·집행위원·감사 직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어 재벌세습에 미칠 영향이 클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총수일가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횡령과 배임의 경우는 5년 동안 직무에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외의 범죄의 경우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회사는 실형 선고로 면직 처리되면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면직 사실과 손해 배상 사실 등을 공표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땅콩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수의 자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과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육군3사관학교 개교 첫 여생도 20명 탄생 16일 오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사관생도 52기 입학식에서 새내기 생도들이 학교장 훈시를 듣고 있다. 개교이래 처음으로 선발된 여생도 20명을 포함한 52기 사관생도는 앞으로 2년 동안 정식 사관생도로서 교육받게 된다. /연합뉴스

'25%' 벽 넘은 문재인 대선주자 1위 기록 경신

새정치연합도 7개월만에 30%대 진입…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대표 선출 이벤트에 힘입어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아무도 넘지 못한 25% 벽을 넘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지율 역시 크게 올라 30%대에 진입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16일 지난 9~13일 성인 남녀 2600명을 대상으로 한 주간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2.0%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여야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6주 연속 선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지난 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25.2%로, 정몽준 전 의원이 지난 해 4월 3주차에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기록한 24.2%를 앞질렀다.

컨벤션 효과로 인한 상승폭 또한 ▲정 전 의원의 5.2%포인트(서울시장 후보 선출 직후인 지난 해 5월 2주차) ▲박원순 시장의 5.2%포인트(서울시장 재선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4.9%포인트(당대표 선출 직후인 지난 해 7월 3주차)를 넘어서는 최고치다.

지역별 지지율에서도 문 대표는 서울과 강원에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에서도 각각 9.1%포인트, 8.1%포인트씩 상승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2위인 박 시장(12.9%)보다 11.3%포인트 더 높았다. 김 대표는 11.6%, 안철수 의원은 7.3%로 뒤를 이었다.

새정치연합 지지율도 동반 상승해 지난 주 5.1%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대비 1.2%포인트 오른 37.3%로 보합세에 머물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4%포인트 소폭 상승한 34.2%를 기록했다. 6주만의 반등으로 리얼미터는 설을 앞둔 박 대통령의 민심 행보를 통해 대구·경북·60대 이상·새누리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집토끼' 층이 돌아온 결과로 분석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2년간의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이임사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총리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떠나지 못했다. /연합뉴스

'반쪽 총리'는 면했지만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박 정부 비판 여론 심화

국무총리 후보자의 4번째 낙마가 더 큰 타격인가. 아니면 여론에 역행하는 총리 임명 강행이 더 큰 타격인가. 레임덕을 우려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했을 문제다. 이제 곧 박 대통령은 고민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후보자 딱지를 뗐지만 앞길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당에서 최소한 7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야당의 반대표로 간신히 52.7%의 찬성표만을 얻었을 뿐이다. '반쪽 총리'는 면했지만 이제는 '불량 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었다. 그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결함이 크다는 의미다.

더 이상의 총리 후보자는 낙마가 국정 운영 동력의 완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 총리 임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총리 임명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이 총리 인준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불이 났다.

아이디 Texxxxxxxx는 "바닥없이 가라앉는 한국 사회에 딱 적당한 총리. 멋지다"고 비꼬았다. 아이디 1exxxxxxx는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가 구속되는 게 오히려 이상한 나라다"며 "정의가 적용될 때와 안될 때의 이 극한 간극을 왜 맛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이자 자조다.

여권 전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아이디 saxxxxxxxxxx는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사상 최악의 총리 후보 인준을 강행처리하는 것을 보면 결국 친박(친박근혜)이나 비박(비박근혜)이나 똑같다는 (결론)"이라고 했다.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는 보이지 않는다. 아이디 21xxxx는 "민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로 '범죄총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국정동력인가. 나라꼴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SNS상에는 "정당성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 총리가 공언한 책임총리제는 물 건너갔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지금 제도로도 20년 뒤면 고복지"

'대통령의 경제교사' 이한구 의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에 포문

"지금 제도만 갖고도 2035년~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복지가 된다."

여당의 경제통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이 같은 말로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중복지 중부담이냐'는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못미친다"며 정부의 복지 축소를 경계하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논쟁으로 상처 입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이 의원은 방송에서 '증세 없는 논쟁'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재성장률을 높여 고복지로 갈 때 부담을 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지금은 증세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생산적 복지, 맞춤형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등 3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가 남유럽의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경제)계획은 잘 짜고 있으나 이런 정책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속도도 느리다"며 "관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한편 국회와 협조를 잘하고 국민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국회 '짝퉁 방화복' 진상조사 착수

전병헌 국민안전혁신위원장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하겠다"

국회가 '짝퉁 방화복'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간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병헌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 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혁신특위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도록 주문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성능 검사조차 받지 않은 소방용 특수방화복 5300여 벌이 전국 소방관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자 문제가 된 5300여 벌을 포함해 최근 납품된 1만9000여 벌 전부를 입지 말라고 일선 소방서에 통보했다. 어떤 게 검사를 안 받은 것인지 판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예산부족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소방관 목숨을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가짜라니 기막힐 노릇"이라며 "방화복 한 벌 인증비 3만원을 아끼려고 품질검사를 조작한 것은 소방관 1명을 3만원씩에 팔아넘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런 사실이 조달청에 들어온 제보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규모만도 최소 5300 벌 이상의 짝퉁 방화복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크로아티아 첫 여성 대통령 취임 크로아티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가 15일(현지시간) 수도 자그레브 구시가지에서 취임식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멈추지 않는 '피의 보복'

IS 피해국 복수다짐…"증오 사슬 끊어야" 주장도

끊이지 않는 복수의 사슬. IS 피해 국가들이 유혈 보복을 다짐하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IS는 리비아에서 인질로 잡았던 이집트인 콥트교도 21명 참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콥트교는 이집트의 기독교 종파로 이슬람 수니파 세력과 대척 관계다.

'십자가의 국가에 보내는 피로 새긴 메시지'란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복면 괴한들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남성을 한명씩 해변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바닷물이 피로 물드는 장면을 공개해 참수 사실을 알린다.

결국 복수는 또다른 복수를 낳았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같은날 국영TV로 중계된 연설에서 IS 보복 의지를 밝혔고, 16일 새벽 리비아 내 IS 거점을 공습했다.

◆ 핏빛 맞대응 불안한 시선

IS 피해국들의 보복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IS에 자국 조종사를 화형으로 잃은 요르단은 최근 열흘 동안에만 연합군과 함께 IS 병영에 56차례 공습을 벌였다. 미국과 일본은 IS 자국민 인질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제한적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담은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요청했고, 일본은 IS 사건을 자위권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한편 덴마크와 프랑스에서는 반유대 범죄가 연달아 터져 유대인 사회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과 1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각 이슬람 풍자 만화를 그린 만평가와 유대교 회당을 노린 총격 테러가 발생해 종교 문제가 얽힌 이슬람 극단세력의 테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15일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묘 수백기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IS와 피해국의 끊이지 않는 유혈 복수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의 종교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남을 모욕하라는 자유는 아니다"고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IS에 아들 고토 겐지(47)를 잃은 어머니 이시도 준코(78)씨는 "나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꿨다. 이 슬픔이 증오의 사슬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총격테러가 발생한 덴마크 코페하겐의 유대교 회당 앞에 15일(현지시간) 죽음을 애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P연합뉴스

용기 있어야 '미남' 얻는다?

팬더 복장으로 프러포즈한 여성 '화제'

metro HongKong

팬더 복장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한 우크라이나의 용기있는 여성이 화제다.

메트로 홍콩은 14일 중국 쓰촨 두장옌 시민들을 감동시킨 프러포즈 사연을 16일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팬더 분장을 한 사람 6명이 중국 인기가요인 '샤오핑궈(작은 사과)'를 부르며 얼떨떨한 표정의 다빈(30)을 둘러쌌다. 그 중 한 '팬더'가 인형탈을 벗고 이 남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로 그의 여자친구 사샤(26)였다.

사샤는 꽃다발을 남성에게 안기며 "나와 결혼해줘!"라고 말했다. 감동 받은 다빈은 사샤와 입을 맞췄다.

다빈은 "여자친구가 밸런타인데이에 근무한다고 해서 실망했었다"며 "이런 깜짝 프러포즈 계획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扮做熊貓

▲Sasha向男友求婚。(網上圖片)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샤는 1년 전 청두로 여행 왔다가 기차에서 다빈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주위에서는 언어나 문화 차이를 걱정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샤는 중국어를, 다빈은 영어를 배우며 서로의 대한 사랑을 키워갔다. 두 사람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샤 부모를 만나 사랑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이국명기자

뉴잉글랜드 또 눈폭풍…'언제 다 치우나' 미국 동북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또 한차례 눈폭풍이 강타한 가운데 1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노우드의 자동차 거래점 주차장에서 직원이 판매용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셀카봉이 '흉기' 될까 우려

미국 박물관 휴대 금지 확산

앞으로 미국 박물관을 방문할 때는 '셀카봉(selfie stick)'을 휴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 훼손 우려와 다른 관람객 안전을 위해 셀카봉 소지를 금지하는 박물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워싱턴DC의 허시혼 미술관과 조각공원이 셀카봉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DC의 국립미술관과 뉴욕시의 현대미술관,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박물관 등도 휴대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

세계 최대 박물관 운영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 의린다 토머스 대변인은"셀카봉 휴대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소장한 귀중한 작품이 손상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쿡의 마법' 전기차도 먹을까

애플, 테슬라 인수설 논란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한다.'

미국의 유명 벤처투자가 제이슨 캘러케이니스(45)가 이같은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 세계 IT업계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테크레이더 등 정보기술(IT)전문매체에 따르면 캘러케이니스는 블로그(calacanis.com)에 '애플이 18개월 내에 750억 달러에 테슬라를 인수할 것(예측)'이란 글을 올렸다. 아이폰으로 구축했던 스마트폰 생태계를 자동차 분야로 확산하려면 테슬라의 전기차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는 애플은 아이폰6의 대박으로 확보한 자금이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테슬라가 본격적 대중 제품인 '모델 3'를 시판한다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애플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캘러케이니스는 설명했다. 따라서 '모델 3' 개발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과 시판되는 시점 사이에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에 대한 애플의 관심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 애플이 '타이탄'이라는 코드명으로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미니밴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애플이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25만달러(약 2억7000만원)의 보너스와 60%의 연봉 인상을 제의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테크레이더는 "캘러케이니스의 '애플의 테슬라 인수 전망'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완전히 농담인 것 같지는 않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택배·동창모임 스미싱 기승

금융사고 시 대처방안

설날 연휴 기간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와 귀중품 보관, ATM수수료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또 명절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택배 배송'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과 신종금융사기, 보험, 카드 분실 사고 등에 주의경보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에서는 오는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은행업무를 돕는다.

◆이동점포-귀중품 보관 편의 지원

NH농협은행은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17일부터 양일간 망향휴게소(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와 이천휴게소(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인 '뱅버드'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이동점포를 연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오는 26일까지 경남은행에서 보호예수를 신청한 고객은 대여금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27일까지 귀중품을 보관해 준다.

◆신종금융사기·공공기관 사칭 주의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명절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등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날 연휴 기간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택배 도착알림이나 열차 예매, 동창 모임 등은 문자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일 확률이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 앱은 바로 삭제하는 게 좋다.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판매한다면 인터넷 사기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 센터(☎ 1332)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금융사 연락처 확인

고향에 내려가는 길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보험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돼 있거나 나이제한이 있으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를 보상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필요성도 따져봐야 한다.

예상치 않게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우선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한 후 사고 현장과 충돌 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으로 촬영해둬야 한다.

한편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다양한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체류 국가의 카드사별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은행 피싱사고 3년간 6만5267건

지난 3년간 NH농협은행에서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뒤를 따랐다.

1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은행 피싱 관련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기간 17개 시중 은행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는 모두 6만5000건, 3395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 2012년 1만7813건(867억원)이었던 피싱 피해 건수는 2013년 1만9357건(937억원), 작년 2만8097건(15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만4511건에 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각각 1만3560건(677억원), 1만1447건(580억원)으로 1만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우리은행(9526건·410억원), 하나은행(4,339건·240억), 기업은행(3664건·210억) 순이다.

특히 농협, 신한, 우리, 국민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 해에만 4,000건 이상의 피싱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백아란기자

부천 자유시장 찾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을 방문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또 부천 자유 시장에서 상인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1월 직접금융 조달액 7조5000억…주식·회사채 감소

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이 전달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7조5193억원으로 전달보다 22.6%(2조1999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3.7% 줄어든 수치다.

기업공개와 은행채 발행이 각각 1건에 그치는 등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이 직접금융 조달액의 하락세를 주도했다. 이 기간 주식 발행규모는 3394억원으로 지난달보다 71.0%(8315억원) 떨어졌다.

DGB 금융지주(3154억원) 등 유상증자 발행액은 증가했지만, 기업공개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회사 1건으로 7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에는 기업공개가 활발한 편이지만, 연초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발행액은 7조1799억원으로 지난달보다 16%(1조3684억원) 줄었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2조원 수준으로 발행되던 은행채가 지난달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1건으로 500억원 규모였다. 은행들이 금리 등을 지켜보며 발행을 연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일반 회사채는 24건이 3조19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이마트(5000억원), 현대제철(3900억원), KT(4500억원), 현대로템(3250억원)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발행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AA등급이 2조1100억원 수준이었고, A등급 5450억원, AAA등급 5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BBB등급 이하로는 발행되지 않았다.

/김민지기자 minji@

market index <16일>

지표	수치	변동
코스피	1958.23	(+0.73)
코스닥	610.16	(+2.09)
금리(국고채 3년)	2.09	(+0.04)
환율(원·달러)	1101.50	(+1.20)

뉴스&뉴스

농협은행 떡국 배식 봉사

●NH농협은행은 16일 직원 봉사단인 'NH행복채움회'와 김주하 은행장이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김 행장과 NH행복채움회 회원들은 500여명의 관내 어르신들에게 점심으로 떡국을 제공하고 배식과 설거지 봉사에 손길을 보탰다.

또 사랑의 쌀 150포 등 후원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아쟁과 가야금 등으로 구성된 5인조 국악단의 무료 국악 공연도 개최했다.

김 행장은 "주위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복채움금융을 통해 사회공헌 1위 은행으로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하나카드 "생활비 드려요"

●하나카드는 G마켓과 손잡고 대한민국 미생을 응원하는 '생활비 후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G마켓에서 미생카드로 첫 결제한 고객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5000원 상당의 G캐시를 받을 수 있다.

또 추첨을 통해 1명에게는 G마켓에서 전 품목을 구매 할 수 있는 100만원 G캐시를, 2명에게 50만원 G캐시, 3명에겐 30만원 G캐시를 생활비로 후원한다. 이밖에 4명에게 커피믹스 1박스씩, 5명에게 미생물(2L, 6개)을 선물한다.

타 가맹점 결제이력이 있는 고객도 G마켓에서 첫 결제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립 받은 G캐시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쿠폰을 중복을 사용할 수 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보험사 호실적에도 웃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 일회성 순익에 그쳐…저금리 리스크와 자보 손해율 급증 악재

국내 보험업계가 지난해 두 자릿수 이상의 당기순이익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회성 이익분을 제하면 증가율이 높지 않아 저금리 등 저성장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당기순익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5조632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생명보험사의 당기순익은 3조2616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5.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도 18.5% 증가한 2조4887억의 순익을 보였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각각 전년 대비 0.03%p, 0.53%p 상승해 수익성도 개선됐다.

하지만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순익 상당부분이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과징금 환급, 부동산 등 일회성 이익이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물산 주식처분으로 4768억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환급 1286억원 등 일회성 이익이 전체 순익(1조3610억원)의 45%에 달한다. 1644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 창사 최대 순익을 본 동양생명의 경우 판교 등에서 700억원 대의 부동산 일회성 순익이 발생했다.

일회성 이익이 무관한 보험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친 179조5000억원이었다. 생보사는 1.9%, 손보사는 4.9% 증가에 불과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4조845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퇴직연금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는 등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 크게 증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불거진 미지급 재해자살사망보험금 행정소송에서 생보사가 패소할 경우 일회성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 규모는 2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삼성·ING생명 등이 현재 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지만 추가소송이 불가피한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것.

손보사는 장기손해보험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47조8296억원을 기록했지만 일반손해보험은 0.8% 상승에 그쳤다.

특히 손보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주요 손보사의 자보 손해율은 대부분 100%를 넘었다. 손보협회와 각사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자보 손해율은 98.3%를 기록했다. 이밖에 현대해상(104%), 동부화재(99.9%), LIG손해보험(105.1%), 메리츠화재(110.8), 한화손해보험(108.9%)을 보였다. 자보의 적정 손해율은 77% 안팎으로 이보다 높으면 손보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지난해 순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 유지와 자보 손해율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의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는 손보사의 구조조정과 매각이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3월부터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

앞으로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대해 출자 할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며 펀드 가입시 일률적으로 들어야 했던 설명방식은 개선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 47건을 검토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는 전자금융업 등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유권해석을 공개키로 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카드사의 부수업무는 네거티브화한다.

이에 카드사들은 일주일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시 해당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의 결제 안정성이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된다.

펀드판매에 대한 설명 방식도 바뀐다. 대토론회 당시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같은 설명을 30분 동안 듣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위는 3월부터 표준투자준칙상 설명의무 실행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해당 업권 협회, 펀드판매사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간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권·학회가 함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예컨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개인의 건강상태를 수집해 보험료율 책정에 활용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감독과 검사, 제재 방식 등을 쇄신해 금융적폐 해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백아란기자

우리카드·SK텔링크, 라카드 출시

"통신료 최대 2만원 할인"

우리카드는 16일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와 손잡고 '세븐모바일이라서즐거운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통신료 할인을 전면에 내세운 이 상품은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 70만원과 100만원 이상 사용시에는 각각 1만5000원, 2만원까지 통신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영화관 3000원 할인과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20% 할인, 아웃백·TGIF 10% 할인,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영화관과 커피숍, 레스토랑에서는 기타 쿠폰이나 멤버십할인과 중복혜택이 주어진다. /백아란기자

조혈모세포 기증 확산 프로젝트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조혈모세포 기증 확산을 위해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조혈모세포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아이디어 기획안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푸르덴셜생명 제공

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부정 사용'

지난 2010년 주부 A씨는 남편이 준 신용카드를 목욕탕에서 도난당했다. 이후 A씨의 남편은 신용카드로 320여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을 알고 카드사에 신고했지만 타인에게 양도·대여했다는 점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반 신용카드의 대여·양도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카드'발급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신용카드의 경우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여하거나 양도시 부정사용으로 판단, 카드사에서 보상하지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카드 발급을 권고했다.

'가족카드'는 카드를 신청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이는 본인회원과 그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가족회원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대상이 될 경우 가족회원의 카드 사용대금이 본인회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본인회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본인회원은 본인과 가족회원의 채무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만 책임진다.

아울러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하여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다른 가족 포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담보제공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이혼이나 사망 등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있을 경우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하며, 통지하지 않고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약간의 자존심, 접은 꿈과 맞바꾼 월급
용돈에서 아껴둔 비상금
연휴까지 반납하면서 따낸 경쟁프로젝트 보너스…

당신의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잘 알고 있기에
신한은 금융상품 하나하나에도 진심을 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투자환경이 급변해도 믿을 수 있는 따뜻한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신한금융투자

따뜻한 미래를 열어가는 **[신한 중위험 중수익 프로젝트]**
변동성 크고 불안정한 투자환경에 발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위한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상담전화:1600-0119/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참조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기시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1265호 (2014-03-07~2015-03-06)

한·일 통화스와프, 14년 만에 끝

예정대로 23일 만료

한·일 통화스와프가 14년 만에 종료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고 있는 스와프 창구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예정대로 오는 23일 만료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5월 23일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같은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대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계약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권역 내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1년 7월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을 막지 못해 발생했던 외환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통화 스와프 계약을 유지해왔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2011년 10월에는 규모가 7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전후해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이후 양국은 이해 10월 통화스와프의 별도 만기연장을 하지 않아 그 규모가 13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현재는 지난 2013년 6월 만기된 30억 달러도 연장하지 않아 100억 달러만 남아있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제외하고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최고가 경신 무려 160종목

화학·금융 업종이 대세

올초 증권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은 화학과 금융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화학이, 코스닥시장에서 금융이 각각 최다 비중을 보였다.

그간 한국 증시는 코스닥지수가 600선 고지를 돌파하는 등 활개 조짐을 보여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1월 2일~2월 11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1.57%, 코스닥지수는 10.76%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양시장을 합쳐 총 160종목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15종목이, 코스닥시장에서는 45종목이 최고가에 도달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45종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화학(10종목)이었다.

이어 서비스업(8종목), 유통업(4종목), 철강금속, 금융업, 비금속광물(3종목). 섬유의복, 음식료품, 기계, 운수창고업(2종목), 운수장비, 의약품, 종이·목재, 건설업(1종목) 순이었다.

코스닥시장 최고가 경신 115종목 중에서는 금융(25종목)이 압도적이었다.

제약, 반도체(10종목), IT부품, 통신장비(8종목)이 2, 3순위를 차지했다.

기타서비스(7종목), 소프트웨어(5종목), 유통, 디지털컨텐츠, 의료·정밀기기, 오락·문화, 화학, 금속(4종목), 섬유·의류(3종목), 기계·장비, 정보기기, 운송장비·부품, 음식료·담배, 컴퓨터서비스 (2종목), 출판·매체복제, 종이·목재, 건설, 일반 전기전자, 비금속(1종목)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고가 경신 종목에는 시가총액 상위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3위인 제일모직, 15위인 아모레퍼시픽, 18위인 삼성화재 등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동서(3위), 메디톡스(5위), 이오테크닉스(7위)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 4사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보라기자 purple@metroseoul.co.kr

BNP파리바 2015년 신년맞이 바자회 지난 14일 아름다운 가게 안국점에서 열린 나눔 바자회에 참여한 BNP파리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장 크리스토프 다베스, 네 번째는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대표이사 크리스토프 모로.

/BNP파리바 제공

웰스파고 이머징마켓 에쿼티 인컴펀드 출시

삼성증권은 세계최대 금융 그룹 중 하나인 미국 웰스파고 계열 웰스파고 자산운용의 이머징마켓 배당주 펀드인 '웰스파고 이머징마켓 에쿼티 인컴 펀드(Wells Fargo Emerging Merkets Equity Income Fund)'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웰스파고 이머징마켓 에쿼티 인컴 펀드는 전세계 신흥국의 고배당주식에 투자하는 정통배당주 펀드다.

삼성증권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품을 출시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 펀드에 대해 "오랜기간 이머징마켓에 대한 거시경제 및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고배당주의 높은 실적 트렌드와 구조적 시장변화에 따른 투자기회를 선별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머징 증시가 손실을 내는 상황에서도, 전세계 이머징마켓펀드 중 상위권의 양호한 운용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매년 결산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지만 역외펀드는 매도시점에만 과세되어 장기 투자시 복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본 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은 2500 US달러(280만원)이고, 수수료는 연보수 1.85%와 가입금액에 따라 0.6~1.0%의 선취수수료를 받는다.

한편 웰스파고자산운용은 4900달러(약 54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전세계 500명 이상의 운용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보라기자

'주총데이' 올해도 3월 금요일에 몰린다

올해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대부분이 '3월 금요일'에 몰려 열린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한 상장사 236개사 중 금요일(3월 13·20·27일)에 주총을 여는 곳은 183개(77.5%)에 달한다.

다음달 13일에는 삼성 계열사들이 한꺼번에 주주총회를 연다.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에스원 등 삼성 계열들이 3월 13일 오전 9시에 주주총회를 연다. 두 곳 이상의 삼성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려면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주주총회도 다음달 13일 열린다.

다음달 20일과 27일에도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대거 몰려 있다.

네이버와 현대글로비스, 녹십자, LS산전, 만도, 농심, 한라 등이 20일에, NHN엔터테인먼트, LS, 엔씨소프트 등 상장사들은 다음달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특히 넥슨과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엔씨소프트의 이날 주주총회는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몰아치기 주총이 소액주주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꾸준히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도 기업들은 3월 금요일에 주주총회를 몰아서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삼성과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CJ 등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같은 날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현대차와 LG, 롯데 등의 그룹은 70%가 넘는 계열사가 한 날 주주총회를 열었다.

이런 한날한시 주주총회는 안건에 대한 부실한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600개 기업의 5667개 안건 중 5개 안건만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한번에 몰리면 소액주주 뿐만 아니라 기관 역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제도적으로 주주총회 날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안정성·기본기 갖춘 한국지엠 '성장 엑셀'

안전도 1등급 크루즈, GM 베스트셀링카 자리매김…스파크 EV 글로벌 사랑

어메이징 뉴 2015 크루즈

쉐보레 스파크 EV

쉐보레 스파크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1월 판매량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내수와 수출 모두 합쳐 5만 1585대를 팔아 점유율 13.9%로 시장 3위에 올랐다. 국산차 중에서는 최고의 점유율 신장세다.

지난해 쉐보레 제품의 뛰어난 경쟁력과 최고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만 15만4381대를 팔아 2002년 출범 이후 연간 최대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쉐보레 브랜드가 이처럼 내수 시장에서 성장하는 바탕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있다.

자동차의 본질은 잘 가는 것은 기본이고, 내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성'이 차를 선택하는 핵심요소로 손꼽힌다.

한국지엠은 안전성 분야에서 리더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차량 개발 초기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해 차량을 디자인,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 특히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는 탁월한 제품 안전성이 그 중에서도 핵심이다.

경차 스파크에서부터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말리부 그리고 알페온 등 전 제품이 유럽, 미국, 호주 신차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얻어 '안전한 차'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쉐보레 크루즈', 신차안전도평가 1등급 받아 경쟁우위 증명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신차안전도평가에서 쉐보레 크루즈가 정면·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을 기록, 충돌 안전성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크루즈의 충돌 안전성 분야 점수는 65.5점으로, 중형차 쏘나타·대형차 제네시스와 동일한 점수를 기록해 차급을 뛰어넘는 안전성을 증명했다.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실적 300만대를 돌파한 쉐보레 크루즈는 총 39개의 제품 관련 수상을 기록하는 등 탁월한 상품성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는 GM의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링카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주행성능을 꼽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성에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지엠은 스타일과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한 '어메이징 뉴 2015 크루즈'를 출시,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전 트림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인 SESC를 탑재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크루즈는 국내 준중형차 최초로 능동안전사양인 사각지대 경고시스템(SBZA)을 적용한 바 있다.

이외에도 쉐보레 크루즈는 2010년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ATSA) 안전도 평가 1등급을 받았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발표한 2011년형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된 바 있다.

◆'순수전기차 쉐보레 스파크 EV', 국내 최초 충돌테스트 만점

국내에 시판 중인 전기차 최초로 지난해 신차 안전도 평가(KNCAP)를 받은 쉐보레 스파크 EV는 정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해 크루즈와 더불어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KNCAP에서 스파크 EV가 획득한 충돌안전성은 62.6점으로, 준중형 골프(61.8점)나, 중형 A6(62.4점), 대형 ES350(62.1점) 보다 좋은 점수를 얻었다.

스파크EV는 운전석 및 동반석에 충돌 속도에 따라 에어백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어드밴스드 에어백(Advanced Airbag)은 물론, 앞뒤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 등 총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 동급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을 확보했다. 30km/h 미만의 저속주행 시 보행자가 차량의 접근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상의 엔진음을 내는 보행자 경고(Pedestrian Alert) 기능 등 첨단 예방안전 시스템을 갖췄다.

◆'쉐보레 스파크', 경차 그 이상의 안전성 고객맘 사로잡아

지난해 글로벌 판매 300만대를 달성한, 한국지엠의 효자차종인 스파크는 경차를 뛰어넘는 안전성을 갖췄다. 쉐보레 스파크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4개 부문 안전테스트 항목에서 최고등급인 '우수(Good)' 등급, 스몰오버랩 테스트에서 '양호(Acceptable)' 평가를 받아 경소형차 11개 모델 중 유일하게 '2014 가장 안전한 차'에 선정됐다. 2013년 KNCAP 종합 평가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국내외에서 최고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다.

지난 1월 출시한 2015 쉐보레 스파크는, 스파크S에 적용된 바 있는 GEN2 1.0 가솔린 엔진과 C-TECH 파워트레인을 전 모델에 확대 적용했다. 변속 충격 없는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획기적인 소음저감효과는 물론, 경쾌한 초반 가속 응답성과 고속주행 시 우수한 주행 안정성을 제공했다. 기존 경차의 장점으로 꼽혔던 우수한 경제성, 디자인, 운전의 편리함에 스파크만의 우수한 주행성능을 추가함으로써 경차 이상의 운전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국지엠은 다른 자동차회사 보다 진일보한 기술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쉐보레=안전한 브랜드'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훈기자 fun@metroseoul.co.kr

현대차 전주공장 6년 안에 10만대 체제 구축

2020년까지 총 2조원 투입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윤갑한)는 상용차 부문의 글로벌 메이커 도약을 위해 전주 상용차 공장 증산 및 상용 연구개발 집중 투자 등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6년 동안 전주공장 신·증설 등 생산능력 확대에 4000억원, 상용부문 신차 및 연구개발(R&D)에 1조6000억원 등 총 2조원을 투자하고 그 외에 전주공장내 파일롯트동 및 글로벌트레이닝센터(GTC)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승용부문 대비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용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상용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함으로써 해당 업계의 글로벌 강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화성공장. /기아차 제공

현대차는 2014년말 기준 6만5000대 규모였던 전주공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만대 증산체제로 구축하고, 늘어나는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인력 1000여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주공장은 선진시장용 고급형 모델과 신흥시장용 보급형 모델을 라인업에 추가해 내수 및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2017년 8.5만대(31% ↑), 2020년 10만대(54% ↑)로 증산할 방침이다.

상용차 전세계 산업수요는 2014년 312만대에서 2020년 396만대로 약 27%(연평균 4.2%)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미진출 지역인 서유럽 및 북미에 고급형 신규 모델을 투입해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각오다.

또 직원 및 소비자를 위한 GTC를 건립해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자동차 교육 및 테마파크 운영 등 회사와 고객 간의 소통공간이 될 글로벌트레이닝센터가 설립되면, 매년 4만명 이상의 직원과 고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필기자 roman@

현대차 '인도 올해의 차' 수상왕 등극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여러 언론 등이 수여하는 '올해의 차' 수상을 휩쓸었다.

16일 현대차 인도법인에 따르면 현대차 i20는 최근 인도 CNBC가 수여하는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현대차, 신형 i20 인도 올해의 차 수상.

이외에도 작년 11월말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탑기어, 오토카 등이 실시하는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올해의 자동차 메이커' 2개상과 신형 i20 23개, 엑센트 4개, 싼타페 3개 등 총 32개의 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 전략형 소형 해치백인 i20가 인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5년 인도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시장에서 신형 i20(4만5130대), 신형 엑센트(5만1614대) 등 신차 판매 호조로 총 41만1471대를 판매해 1998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사상 처음으로 4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업체별 판매에서도 현대차는 115만2000여대를 판매한 스즈키 마루티에 이어 시장점유율 16.2%를 기록, 2위 자리를 유지했다.

/김종훈기자

삼성전자 가상 현실 헤드셋 출시

'기어 VR 체험존'도 운영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기 '삼성 기어 VR' 이노베이터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 기어VR은 갤럭시노트4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된 가상현실 헤드셋이다. 이 제품을 착용하면 더욱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기어VR은 360도 파노라믹 뷰와 넓은 시야각을 지원하며, 영상 속 장면이 실제 눈 앞에 펼쳐지는 듯 공간감도 제공한다.

갤럭시 노트4의 5.7형 쿼드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화질을 기반으로 선명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삼성 기어 VR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 시청 중 머리를 움직여도 화면이 끊어지는 등의 현상이 거의 없어 사용자가 보다 자연스럽고 실감나는 가상현실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스토어에서 삼성 기어 VR을 판매한다. 선착순 500명에게는 정품 배터리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출고가는 24만9000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기어 VR'은 모바일 기반 가상현실 헤드셋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선도 주자로서 혁신 제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놀라운 경험과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삼성 딜라이트샵과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 20여 곳에 '기어 VR 체험존'을 운영한다.

/양성운기자 ysw@

MWC서 삼성 vs LG 맞대결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략 제품 공개

'삼성 갤럭시…' 행사 초청장. /삼성전자 제공

'LG 워치 어베인' /LG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달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15'에서 스마트 워치인 '오르비스'와 'LG 워치 어베인(Urbane)' 등 모바일 사업부 주력 신제품을 내놓고 경쟁을 벌인다. 이번 MWC에서는 LG전자가 'G4'를 공개하지 않아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와 맞대결은 무산됐다.

이번 MWC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다. 지난해 모바일 사업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삼성전자는 MWC 2015 개막 하루 전인 다음달 1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15'를 열고 갤럭시 S6를 공개하고 반전을 노린다. 지난해 출시됐던 '갤럭시 S5'의 부진을 만회해야 하는 갤럭시 S6는 신제품 코드명이 '프로젝트 제로'일 정도로 전작과 완전히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갤럭시 S6에는 갤럭시 시리즈 처음으로 프레임에 메탈 소재가 적용된다. 또 삼성이 지난해 '갤럭시 노트 4'에 적용했던 엣지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한정판 모델도 따로 출시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7420'이 탑재돼 시장에서 성능을 검증 받게 될 것인지 여부도 관심사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810'이 발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엑시노스가 성능을 인정받게 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던 삼성전자의 시스템LSI 사업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이번 MWC에서 차기 스마트폰 대신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무장한 스마트워치를 선보인다. MWC에서 공개될 LG 워치 어베인(Urbane)은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원형 스마트워치 'G워치R'처럼 웨어러블 기기보다는 시계라는 특성을 살린 제품이다. 소비자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실제 판매로 이어지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 워치 어베인은 G워치R보다 베젤 폭을 줄여 크기·두께를 모두 감소시키면서 보다 시계에 가까운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바디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후가공 처리해 스크래치와 부식 방지 기능을 향상시켰으며 천연 가죽에 스티치(바느질 방식) 마감을 한 스트랩을 적용했다. 삼성전자 역시 '오르비스'로 알려진 원형 스마트워치를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양사의 진검승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원형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워치를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삼성 드럼세탁기, 유럽 소비자 평가서 1위

포르투갈·영국 등에서 연이은 호평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포르투갈 대표 소비자 매거진 '데코 프로테스테(Deco Proteste)'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드럼세탁기 평가 결과에서 삼성 크리스털 블루 도어 드럼세탁기 'WW9000'이 총 95개의 평가 모델 중 종점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데코 프로테스테는 세탁·헹굼·탈수·세탁 소요 시간·친환경성·소음·사용 편리성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영국 위치(Which) ▲프랑스 크슈아지르(Que Choisir) ▲이탈리아 알트로컨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시유 콤프라 마에스트라(OCU Compra Maestra) ▲스웨덴 라드앤론(Rad & Ron)에 이어 유럽 6개국 대표 소비자 평가 매거진 1위를 석권했다.

이와 함께 엑스퍼트 리뷰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5년 베스트 추천 세탁기(Best washing machines to buy in 2015)' 5개 모델에도 3개의 삼성전자 드럼세탁기가 포함됐다.

/정혜인기자

모바일 프로세서도 14나노 시대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3차원(3D)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FinFET) 공정을 적용한 14나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양산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AP를 만들 때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셀을 쌓는 3D 공정을 적용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14나노 공정은 20나노 공정보다 성능이 20% 향상되고 소비전력은 35%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도 30% 개선시킬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14나노 모바일 AP를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에 3차원 반도체 공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미래 '3차원 반도체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이어 시스템 LSI 사업도 크게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4나노 핀펫 공정을 갤럭시S6에 탑재될 '엑시노스 7 옥타' 시리즈 신제품에 처음 적용키로 했다.

/양성운기자 ysw@

벤츠, 제로백 4.6초 '더뉴 A45 AMG 4매틱' 출시

A-Class의 고성능 모델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4기통 엔진 탑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강남대로 전시장에서 프리미엄 컴팩트 카 A-Class의 고성능 모델인 'The New A 45 AMG 4MATIC'을 출시하고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www.mercedes-benz.co.kr)가 젊고 스포티한 감각의 프리미엄 소형차 A-Class의 고성능 모델인 새로운 고성능 컴팩트 카 더 뉴 A 45 AMG 4MATIC을 국내 시장에 새롭게 출시한다.

메르세데스-AMG 특유의 파워풀하고 익스클루시브한 디자인과 함께 폭발적인 엔진 파워로 탁월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더뉴 A45 AMG 4매틱은 더뉴 CLA 45 AMG 4매틱, 더뉴 GLA 45 AMG 4매틱에 이어 국내에 출시되는 세번째 메르세데스-벤츠 고성능 소형 모델이다.

메르세데스-벤츠 고성능 컴팩트 카 모델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차량 제작 경험을 통해 메르세데스-AMG의 DNA를 담아냈다.

더뉴 A5 AMG 포매틱에는 메르세데스-AMG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개발한 AMG 4기통 엔진을 탑재, 2.0리터 고성능 차량으로 운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 퍼포먼스 중심의 가변식 사륜구동 시스템인 포매틱(4MATIC)이 적용돼 모든 도로 조건에서 최적의 트랙션과 주행 역동성을 제공하고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가능케 한다.

더뉴 A5 AMG 4매틱은 최고출력 360마력(6000rpm), 최대 토크 45.9kg.m(2250-5000rpm)의 주행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 250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4.6초 만에 주파한다. 가격은 65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김종훈기자 fun@

이통사, 요금제 상품 출시 폐지 번복

소비자 혼란 가중

최근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약관 변경이나 서비스 폐지가 잦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인 'T가족포인트'를 폐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가족무한사랑클럽' 혜택을 축소했다.

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를 대체할 새로운 혜택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SK텔레콤이 20여개 단말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을 줄줄이 하향조정되고 있어 마케팅비 절약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폐지된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인 'SKT T가족포인트'.

LG유플러스도 미래창조과학부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았던 가족무한사랑클럽의 서비스 내용과 약관을 변경해 한 달 만에 출시했다. 이 혜택의 경우 포인트를 단말기 선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우회 보조금 여지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해당 이통사들이 혜택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고객서비스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정식 소비자권익위원회 위원은 "이통사의 혜택 제도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바뀌면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혜택 제도를 만들기 전 향후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통 3사 모두가 내놨던 단말기 선보상제의 경우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단말기 선보상제가 이용자 차별 및 우회 보조금 변질 등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이통사가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을 전제로 해당 단말기의 미래 중고폰 시세까지 책정해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선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을 출시하자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플랜'이라는 유사 프로그램을 줄줄이 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우회 지원금 변질 가능성이 있어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유통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14일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시작된 후 SK텔레콤과 KT는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나섰지만 LG유플러스는 되레 서비스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특별한 제도 보완 없이 중고시세 하향에 따라 보상금액 기준까지 낮췄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른시일 내 결과를 토대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삼성전자, 터키서 CIS 포럼 개최 2015년 삼성 CIS 포럼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삼성의 105인치 SUHD TV 신제품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SUHD TV 제품군과 함께 무지향성 오디오 등을 호평했다. 냉장고·식기세척기·오븐·세탁기를 비롯한 에어컨, 청소기 등 생활가전 제품도 인기를 모았다. /삼성전자 제공

<사물인터넷>

KT-경기도, IoT 접목 '안전한 어린이집' 구축

KT와 경기도가 사물인터넷(IoT)을 적용한 안전한 어린이집 구축에 나선다.

KT는 16일 경기 분당사옥에서 황창규 KT회장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차세대 IoT 보육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IoT 어린이집은 아이가 착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등하곳길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등교 후 어린이집을 벗어나면 이를 즉시 부모에게 통보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린이집 곳곳에 설치된 CCTV를 기반으로 부모가 수업장면을 스마트폰 또는 IPTV 화면으로 볼 수 있어 보육교사의 폭력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이밖에 스마트칠판을 포함한 최첨단 스마트 교육 환경이 구축된다. 경기도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지원하고 KT는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한다.

황창규 KT 회장은 "이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공유가치창출경영(CSV) 관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준기자

현대제철 스포츠단, 해외 전지훈련 돌입

현대제철 스포츠단이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은 WK리그 통합 2연패와 전국체전 우승을 거머쥔 여자축구단이 스페인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제철 여자축구단 레드엔젤스는 스페인축구 여자리그 챔피언 FC바르셀로나와 한국-스페인간 양국의 자존심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 지난 9일 출국했다.

스페인 현 국가대표 감독인 델 보스케 감독(뒷줄 오른쪽에서 9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여자축구단.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최인철 감독은 "전술을 강화해 올시즌에는 더욱 멋진 경기력을 선보일 것"이라며 "2015 FIFA 여자 월드컵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남자양궁단은 40개국 2,532명의 선수가 참여한 '라스베이거스 실내 양궁대회'에서 개인 1~4위를 모두 석권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진혁(34) 선수는 총점 891점으로 소속팀 막내인 민병연(19) 선수를 4점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김재형(25) 선수와 임지완(24) 선수가 각각 3, 4위에 올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대제철은 비인기종목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스포츠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소리기자 10sound@

대우조선해양, 핵심기술 무상공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한 결정

대우조선해양(사장 고재호)이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국내 기업에 무상으로 개방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조선업체와 기자재 기업들에 액화천연가스(LNG)연료 추진선박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16일 결정했다.

국내 대형 조선업체가 자사의 핵심 특허기술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다.

사측에 따르면 무상 제공 대상인 'LNG 연료공급시스템(HiVAR FGSS, 액화 시스템 제외)'은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LNG 연료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이다.

해당 시스템이 없으면 천연가스의 선박 동력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관련 기술을 독자 개발해 국내·외에 특허 출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국내 중소 기자재업체들에게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지난달 국내 조선소들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술 이전 방식을 논의해 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기업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해외 경쟁국에 대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을 개방한다고 무상 이전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필기자 roman@

정부장학금

2015년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대학교 총 등록금
14조 원의 절반인 **7**조원 지원

14조원 대학교 총 등록금 ▶ 7조원
정부 장학금 3.9조 원
대학 자체 노력 3.1조 원

정부장학금 예산 확대

작년 대비
1,700억 증액

(단위 : 조 원)
2013 3.01 / 2014 3.74 / 2015 3.91

저소득층 지원 확대

연간 최대
480만 원 지급

연간 최대 지원 480만 원 / 연평균 등록금 662만 원 → 72% 연평균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

(단위 : 만 원)

년도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2015	480	360	264	168	120
2014	450	337.5	247.5	157.5	112.5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1~2학년으로 대상 확대

연간 **2,000**억 원 지원
❶ 1~2학년까지 확대 지원
❷ 만21세이하
❸ 소득 8분위 이하
❹ 셋째 이상 대학생

국가 근로 장학금

인상된 시급 단가,
늘어난 지원 인원

학교 내 시급 8,000원
학교 외 시급 9,500원

2013 1,431억 원 7만 2천 명
2014 1,943억 원 9만 3천 명
2015 2,095억 원 10만 명

대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6년 만에 **4.9%**나
인하된 금리

(단위 : %)
2008 7.8 / 2014 대출금리 2.9

저금리 전환 대출

과거 7.8%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9% 저금리 대출로 전환

2.9%
금리 최대 5% 인하
대출기간 최대 13년 연장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 상환

0%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5년 대학등록금 정부 지원. /한국장학재단 제공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올해 완전 실현해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힘이 되는 정부장학금

최근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년 대비 1700억원 증액된 정부장학금(3조9000억원)과 대학 자체노력(3조1000억원)으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할 예정이다.

'소득연계형반값등록금' 정책은 2011년 대학 등록금 총액(14조원) 대비 절반인 7조원을 마련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는 것이다.

서강대 2학년 차유진(20)씨는 "국가장학금과 학교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고 기숙사 장학금으로 주거를 해결하면서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도 벌고 있다"며 "우리 집은 지방의 차상위 계층이라 부모님의 부담만으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 어려웠을텐데 국가장학금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씨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의 성과이며 특히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더욱이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보다 1425억원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금액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을 인상해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2학년까지 확대돼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분위의 공정성도 더 확보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정확히 산정해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금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2차 신청기간인 26일 9시부터 다음 달 11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최고 7.8% 학자금대출, 2.9% 저금리로 전환…5월까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5차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이 오늘 17일부터 시행된다.

전환대출 대상자는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잔액을 보유한 채무자로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을 활용하면 고금리대출(최고 7.8%)이 2.9% 금리로 인하되고, 현재 원금상환 중이더라도 거치기간 최장 3년과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전환대출은 올해 5월 종료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에 신청을 해야 한다.

◆연 2.9% 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9만7000명 추가 수혜

한국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정부지원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약 9만7000명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에 한해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지난달 6일부터 시작했으며 금리는 지난해와 같이 2.9%가 적용된다. 대출신청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학자금 지원 국정과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밝은 내일을 신청하세요!

전국 대학교 총 등록금은 14조 원으로
그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와 대학이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근심을 반으로, 학생들의 꿈은 더 크게!

한국장학재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도경완

201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정부의 재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마련한 국가장학금이
**젊은 열정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2015. 2. 26(목) 9시 ~ 3. 11(수) 18시까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관련 문의 : 1599-2000)

신청기준 직전 학기 평점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조건에 따라 70점 이상 80점 미만자도 수혜 가능)

저소득층 지원 대폭 확대 (단위:만원)

기초~6분위까지 집중 지원

- **480만 원** 연간 최대 지원
- **662만 원** 연평균 등록금
- **72%** 연평균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

년도	기초~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2015	480	360	264	168	120
2014	450	337.5	247.5	157.5	112.5

「**비정상의 정상화**」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합니다

설 선물세트 '실속형' 대세

백화점, 10만~20만원대 상품 구매 '껑충'

백화점 설 선물세트 판매가 지난해보다 소폭 성장한 가운데 불경기로 낮은 가격대의 실속형 세트가 판매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롯데백화점의 설 선물세트 본 판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 늘었다. 백화점 측은 "올해 설 연휴가 길어서 연휴 직전에는 설 선물 수요가 줄면서 판매를 모두 마감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8~9% 수준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불황 탓에 인기있는 선물세트는 실속형이었다. 정육 세트는 18만~25만원대 실속형의 매출 구성비가 지난해 45%에서 올해 60%로 높아졌다. 청과 세트 역시 평균 구매단가가 지난해 9만5000원에서 올해 8만5000원으로 10% 가량 낮아졌다. 한우(7.9%↑), 청과(10.1%↑), 수산물(5.1%↑) 등 신선 선물 세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류(11.1%↑), 건강식품(14.8%↑), 인스턴트 식품·생필품(20.5%↑) 등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주류 중에서도 5만원 이하의 실속 와인에 대한 수요가 많았으며 건강 상품군 역시 2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보다는 10만~15만 원대의 실속 상품 위주로 판매됐다고 백화점 측은 전했다.

현대백화점의 지난 2일부터14일 설 선물세트 본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다. 후반부 판매는 약세를 보여 최종적으로는 5~7%의 신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백화점 측은 예상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정육 매출이 19.1%, 건강식품 매출은 15.2%, 청과 매출은 10.5%, 건 식품 매출은 9.1% 각각 늘었다.

백화점 측은 "법인 고객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지난해와 판매 단가가 비슷했지만, 중소기업의 선물 단가는 20~30% 하락했다"며 "기존 20만원 수준의 선물세트에서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의 수요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개인고객과 법인 고객 모두 10만~20만원의 실속 세트를 많이 찾고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설 선물 판매 기간 실속 세트를 중심으로 판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정용진, 골목상권 '야금야금'

수제맥주 이어 일본 브랜드 제휴 '오슬로' 론칭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8·사진)이 수제 맥주에 이어 아이스크림 사업에도 진출,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아이스크림 브랜드 시로이치와 기술제휴를 맺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오슬로'를 론칭했다. 지난달 23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임시 매장 형태로 오픈했다. 업계는 신세계가 아이스크림 브랜드 오슬로를 백화점뿐만 아니라 로드숍으로까지 진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푸드 측은 '정식 매장 개념이 아니라 임시매장이다"며 "국내에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는가 살펴보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드숍이나 매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을 강조하던 신세계가 최근 맥주집에 이어 아이스크림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골목침해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홈플러스도 '열정 페이' 논란

두 달 일하고 '10만원'…대학생 노동력 착취 주장

사회 곳곳에서 젊은이들의 열정을 노동력 삼아 저임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홈플러스가 대학생을 상대로 노동력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사진)의 일부 지점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학점인정인턴제(학점인턴제)'를 실시하며 대학생을 매장 인력으로 활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이다.

1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두달 간 하루 8시간, 주 5일을 꼬박 일했지만 10만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 한장을 받은 게 전부였다.

홈플러스는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받아 매장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새 학기에도 다수의 대학에서 홈플러스로 학생들을 보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국대는 홈플러스 잠실점에 16주 과정, 상봉점에 9주 과정으로 일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이 14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A씨처럼 스펙 한 줄 때문에 착취를 당하는 대학생이 많게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A씨와 같은 일을 하는 홈플러스 직원은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보다 노동에 무게가 실리며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프로그램은 홈플러스에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아니다. 대학교의 요청에 따른 협조의 개념"이라며 "정식 인턴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깜빡 잊은 선물, 휴게소서 사세요" 롯데마트는 경기도 이천 마장휴게소점에서 22일까지 80여가지 신선·가공·생활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KT&G "경쟁사 담배 빼"…불공정행위

케이티앤지(KT&G·대표 민영진·사진)가 경쟁사 제품이 진열·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KT&G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경쟁사제품을 소비자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 8대 편의점가맹본부와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진열장 내에 자기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는 편의점 내 25~40% 이하만 진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속도로휴게소 등 폐쇄형 유통 채널 내에 자기제품만 취급하는 조건으로 공급가 할인,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등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됐다.

또 자기 제품만 취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대형할인마트, 대형슈퍼마켓 등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동원그룹, HMR 시장 진출

동원그룹이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에 진출한다.

동원그룹의 급식·식자재 계열사인 동원홈푸드(대표 신영수)는 강남세브란스병원과 함께 환자식 HMR을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카테고리의 HMR 제품을 자체 개발해 올 5월 오픈할 온라인몰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동원홈푸드 신영수 사장은 "동원홈푸드는 오랜 시간 급식, 식자재유통 사업을 통한 푸드서비스 분야에 오랜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며 "HMR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맛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우육탕면 인기몰이

농심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달 13일 출시한 우육탕면이 한달만에 500만개 판매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판매 가격으로 환산하면 6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라면시장 기준으로 7위권에 해당한다. 당시 7위는 육개장사발면(58억원, AC닐슨)이었다.

한테크 노보, 블로그 오픈

전자담배 전문 기업 한테크 노보는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공식 블로그를 오픈했다.

노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제품 소개와 정보 최신 소식 전달과 함께 이벤트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과 더욱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새로운 금연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 때에 업계 동향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등의 공간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간접경험의 폭을 늘려 줄 예정이다.

놀이동산서 한바탕 놀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설날 큰잔치' 개최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설을 맞아 가족과 함께 도심 속에서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설날 큰잔치'를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먼저 100명이 넘는 연기자와 관객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참여형 공연 '까치까치 설날'이 매일 오후 열린다. 흥겨운 사물놀이와 역동적인 상모 돌리기가 이어지고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면 박을 터뜨리며 다함께 올해 복을 기원한다. 또 신랑과 신부의 전통혼례를 유쾌하게 재현한 민속 퍼레이드 '시집가는 날'도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19일부터 22일까지 민속박물관 저자거리에서는 조선시대 장터 풍경을 그대로 재현한 '여성 농악대 길놀이공연'이 펼쳐진다. 옛 느낌이 물씬 나는 장터 속에서 우리의 음식을 맛보며 거리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22일 오후 가든 스테이지에서 '부리푸리 무용단'을 초청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며 영화 '왕의 남자'에서 줄타기를 선보였던 줄타기 명인 권원태씨가 민속 줄타기의 즐거움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제기차기와 투호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기고 추억의 과자도 받을 수 있는 '복을 뽑아라!'가 20일까지 진행되고 온 가족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가족끼리 다함께'도 준비된다.

더욱이 22일까지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50%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휴기간 중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에게는 동반 3인까지 최대 40%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2월 한 달간 외국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내국인 한 명 가격에 외국인 친구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다문화가정은 동반 3인까지 자유이용권 50%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1661-2000

/황재용기자 hsoul38@

'오로나민C' 전현무·강민경 TV광고 방영

동아오츠카의 종합영양드링크 오로나민C가 광고모델 전현무와 강민경이 출연한 TV 광고 '생기발랄' 편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광고를 통해 남자와 여자, 회사원과 운동선수, 청소년과 어린이 등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전현무와 생기발랄한 미소를 띠는 강민경을 중심으로 회사, 교실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모델들이 오로나민C를 통해 활력을 얻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낯익은 멜로디와 쉬운 가사가 반복되는 후크송으로 만들어진 오로나민C CM송은 모델들의 상황과 어우러져 재미를 더한다.

홍광석 오로나민C 팀장은 "오로나민C 출시 당해년도에 CF, CM송, 샘플링 등 반복적인 노출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입학 앞둔 자녀 눈 건강 챙겨야

임기환 이대목동병원 교수 "이상 있으면 즉각 병원 방문"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취학 전 아이의 시력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어린 시절의 눈 발달이 평생의 시력을 좌우하고 시력장애는 학습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아 눈 건강에 대한 얘기를 임기환(사진)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보통 6~8세 정도가 되면 눈의 기능이 대부분 완성된다. 이 시기 이후에는 시력 발달이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시력장애가 있다면 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시력장애는 굴절이상으로 각막이나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

이런 굴절이상은 안경으로 교정할 수 있다. 간혹 안경을 쓰면 눈이 튀어나오거나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의 안경 착용을 망설이는 부모가 있지만 안경은 시력 저하와 안구 돌출과는 무관하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설연휴 알뜰 외식 즐기세요"

전 매장 정상영업·선물세트 현장판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나 친지와의 외식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해 연휴 동안 전 매장 정상영업을 실시하며 알뜰 외식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강강술래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초와 여의도점은 한우모둠구이·왕양념갈비·한우광양불고기, 역삼점은 왕양념갈비 구이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 증정한다. 또, 전 매장에서는 4인 이상 방문 시 떡국떡(500g)을 준다(18~20일). 택배 마감으로 미처 소중한 분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전 매장에서는 정성과 품격이 담긴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일부품목 제외)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88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 3만6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 5만1600원에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6만원, 한우불고기2호(2.25kg) 8만원, 술래양념1호(16대) 10만원,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10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되는 대작 뮤지컬 '로빈훗' 티켓, 상처받은 모발에 자신감과 행복을 주는 리시리 샴푸&헤어크림, '가족이 건강해지는 사계절 해독밥상'과 '나는 세계역사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 등 길벗의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김수정기자

"잇몸 겉·속 동시 작용 잇몸약 필요"

약사 10명 중 9명이 잇몸 겉과 속에 동시에 작용하는 잇몸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인사이트랩더블유와 함께 1857명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3%가 '잇몸병이 치은과 치주인대, 치조골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답했다. 또 그중 95%는 '잇몸 겉과 속에 동시에 작용하는 잇몸약이 필요하다'고 답해 잇몸병 개선을 위해서는 잇몸 겉과 속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국제약의 잇몸약 '인사돌플러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94%의 응답자가 '인사돌플러스가 잇몸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인사돌플러스는 기존 '인사돌' 성분에 항염·항균작용을 하는 '후박추출물'을 추가한 의약품이다.

/황재용기자

스탠포드호텔 '브라이덜페어'

상암동 DMC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서울은 오는 3월 4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랜드볼룸 2층에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와 웨딩 관계자 200명을 초대해 '2015 브라이덜 페어 (Bridal Fair)'를 선보인다.

이번 브라이덜 페어는 명품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업체의 참여와 함께 뮤지컬 웨딩쇼를 무대에 올린다. 2015년의 새로운 웨딩 트렌드를 감상할 수 있다.

머스테브 "명절 엄마를 위한 선물"

의미있고 독특한 설 선물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타임엔코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벤트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이크업 전문 화장품 브랜드 '머스테브'와 연희동에 있는 토털 뷰티 솔루션 전문 매장 '더 타임 테라피'가 함께 진행한다. 퀸스타임 세트(더 타임 테라피 4종 기초) 구매 시 전문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유명 스타들이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퀸스타임 세트는 천연 식물성 유산균 LTA와 흑효모 발효 추출물이 함유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증 받은 미백·주름 개선 제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머스테브(http://www.mustaev.co.kr) 참조. 문의: 070-8813-7546.

글로벌 이미지서비스의 절대강자!
123RF
국내외 수만 명의 프로 작가가 함께하는
세계 50개국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
사진, 일러스트, 아이콘, 무비클립, 음원 등.
고객센터 1544-4225

상권 발달하니 오피스텔 인기는 '덤'

대학·업무시설 등 끼고 있어 수요 풍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형 상권을 끼고 있는 단지가 유망한 곳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경기도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광명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이 계약 시작 4일 만에 95%의 판매율을 보였다.

광명역세권지구는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입점하며 수도권 서부지역 최대 상권으로 부상하는 곳이다. 앞서 지난해 공급된 3개 오피스텔 역시 단기간 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월세 상품인 오피스텔은 통상적으로 매매가는 그대로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형 상권을 끼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대표 상권 중 하나인 홍대입구역 일대 오피스텔 평균 3.3㎡당 매매가는 2년 사이 1014만원에서 1026만원으로 1.2%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는 971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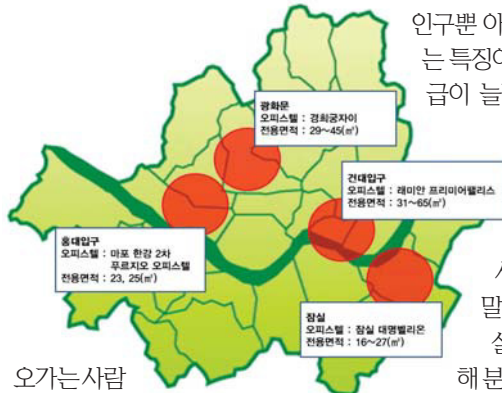
임대료 역시 오피스텔 과잉 공급과 함께 공실률이 높아지며 월 50만원 전후로 형성된 곳이 많지만 홍대 상권 인근은 70만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권이 발달한 지역의 오피스텔이 인기를 끄는 데는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광화문
오피스텔 : 경희궁자이
전용면적 : 29~45(㎡)

건대입구
오피스텔 :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
전용면적 : 31~65(㎡)

홍대입구
오피스텔 :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전용면적 : 23, 25(㎡)

잠실
오피스텔 : 잠실 대명벨리온
전용면적 : 16~27(㎡)

오가는사람이 많아야 활성화되는 상권의 특성상, 유명 대형 상권의 경우 대학가나 업무지구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도심, 강남역, 홍대·건대 상권의 경우 유동인구뿐 아니라 상주인구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며 "오피스텔 공급이 늘면서 임대수익이 보장될 만한 곳으로만 투자자들이 쏠리고, 건설사들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은 당초 올해 분양계획에 없던 '경희궁자이' 오피스텔의 공급 일정을 3월로 확정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광화문·시청 등의 도심상권과 가깝다.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이 좋아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홍대상권 인근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는 대우건설이 '마포한강2차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을 3월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6호선 합정역과 바로 이어지며, 메세나폴리스 상업시설도 단지 앞이다.

삼성물산도 건대상권과 가까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래미안 프리미어팰리스'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외 전용면적 31~65㎡ 오피스텔 55실도 함께 공급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인근에서는 대명건설이 '대명벨리온'을 분양 중이다. 잠실관광특구(롯데월드~석촌호수~올림픽공원)에 둘러싸여 있으며,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연장선 신방이역(2016년 예정)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GS건설, 청라파크자이에 실외 알파공간 제공

GS건설이 최신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은 '알파공간'을 세대 외부에 적용한다.

GS건설(대표 임병용)은 다음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에 2.8~3.3㎡ 규모의 전 세대 오픈형 알파공간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알파공간은 발코니를 확정할 때 '덤'으로 생기는 공간을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팬트리, 취미실, 서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곳이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특화 아이템이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주로 실내에 제공되던 알파공간을 실외로 옮겨 소형 자전거, 유모차, 텐트 등 세대 내부에 보관하기 어려운 스포츠 용품과 아웃도어 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대 창고를 지하층에 제공하는 아파트는 종종 선보였으나 이번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처럼 전 세대 입구 지상 공간에 창고 스타일의 알파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 단지에 제공되는 실외 오픈형 알파공간의 크기는 ▲76㎡ 약 2.8㎡ ▲84㎡A·B 약 3.1㎡ ▲84㎡C 약 3.3㎡다. 부피가 큰 용품도 넉넉하고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형태로 구성된다.

김보인 GS건설 분양소장은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전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져 어린 자녀를 둔 30~40대를 주된 수요층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들은 유모차나 소형자전거, 아웃도어 캠핑용품 등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파악해 오픈형 알파공간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청라파크자이 더테라스는 지하 1층~지상 4층, 35개동, 전용면적 ▲76㎡ 96가구 ▲84㎡ 550가구 등 총 646가구 규모다. 공사기간이 짧아 빠르면 2016년 2월 입주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대우건설, 해빙기 특별 안전진단 점검 대우건설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전국 44개 현장에 해빙기 특별 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담당임원과 현장관계자들이 터널의 낙석위험성을 점검하고 있다. /대우건설 제공

정몽선 회장 '한남동 자택' 경매

정몽선 현대시멘트·성우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16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정몽선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이 경매 신청돼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물건(사건번호 서부3계 2015-1280)은 토지 763㎡, 건물 535㎡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이다. 정 회장이 지난 1995년 토지를 매입해 1997년 준공했다. 주변으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가 일가가 함께 모여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매 신청된 정몽선 회장 한남동 자택.

채무자는 성우종합건설이며, 채권자는 우리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다. 우리은행은 채권최고액 100억원의 근저당을, 대한주택보증은 10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경매는 우리은행이 46억5000여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했다.

물건 지번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당 594만원, 유엔빌리지 주변 시세가 ㎡당 700만~900만원 전후인 점을 감안할 때 감정가는 최소 50억~70억원으로 추정된다.

성우종합건설은 양재동 복합유통시설(파이시티) 시공사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했다 사업 중단으로 자금난에 시달려 왔으며,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가 개시될 경우 많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회생결정이 내려진 성우종합건설인 만큼 회생 절차에 따라 경매 진행이 집행정지 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매각까지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포스코건설, 협력사에 설 자금 조기 집행

포스코건설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금을 조기집행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공사비 약 1500억원과 별도의 설 자금 800억원을 최근 조기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행은 건설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에게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결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거래업체와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거래대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번 설 자금 조기 집행이 중소 협력업체들의 명절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부문 A등급(우수)을 받았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오디션 없이 캐스팅…처음이야”

혜성처럼 떠오른 정혜성

‘오만과 편견’으로 존재감 업…‘블러드’로 다시 인사
“어릴 적 꿈 성악가…배우의 길 가족 모두 좋아해요”

배우 정혜성(24)은 20대 여배우 기근 현상이 두드러지는 연예계에 혜성처럼 떠오르고 있다. MBC ‘친구, 우리들의 전설’(2009)로 데뷔한 후 SBS ‘기분 좋은 날’(2014), MBC ‘오만과 편견’(2014)으로 존재감을 보인 그는 올해 KBS2 새 월화드라마 ‘블러드’로 배우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예정이다.

정혜성은 ‘블러드’ 출연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 오디션을 보지 않고 캐스팅됐다”며 기뻐했다.

“감독님이 전작 ‘오만과 편견’을 봤다고 들었어요. 감독님을 대본리딩 때 처음 봤죠. ‘이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의학드라마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른 배우들과 묻어가면서 연기하려고 합니다. 전작에서 최우식을 가지고 놀았다면 ‘블러드’에선 구혜선이에요. 유리타(구혜선)의 친구지만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조언하죠. 시청자들이 제가 나오면 ‘숨이 트인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또 시놉시스에는 러브라인이 있었는데 아직 대본에는 안 나왔어요. (러브라인) 있었으면 좋겠어요.(웃음)”

성악가를 꿈꾸던 아이였다.

“5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성악을 배웠어요. 3살 터울 언니가 배우는 걸 보고 제가 하고 싶다고 했죠. 창작동요제에 나가서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춘기 들어서 엄마에게 공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변성기 때 목소리를 다듬어 놓지 않으면 안되더라고요. 성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은 또 다시 예체능, 연기 쪽으로 갔죠. 어릴 때부터 했던 거고 ‘못해도 반은 가겠지’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악기, 고전무용, 현대무용을 배우면서 예체능을 많이 경험했고 공부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저는 소속감이 큰 사람이기도 해요. 학교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죠. 이번 학기는 ‘블러드’ 촬영 때문에 걱정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성실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학교에 연예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니까 교수님에게도 뿌듯한 제자가 되고 싶어요.”

정혜성은 초등학생 남동생을 걱정하는 누나이기도 하다.

“띠동갑 남동생이 있어요. 피규어를 사려고 하죠. 게임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막둥이라 철이 없어요. 제 동생만 군대를 10년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웃음) 남동생은 걸스데이, 현아를 좋아해요. 저는 동생한테 밖에서 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시켰죠. ‘누나 민낯이 어떻다’ 같이 혹시나 아무 말이나 할까 봐요. 가족들은 (연기하는 걸) 모두 다 좋아해요. 아빠는 제가 여자라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유해지셨죠. 어머니께서는 제 기사를 일일이 다 찾아보세요. 의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엄마에게 많이 물어보죠. ‘연기가 왜 그러니’라면서 모니터링도 엄격하게 해주세요.”

정혜성의 SNS는 소리소문 없이 구독자 수가 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여성 팬이 눈에 띈다.

“여성 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유명하지 않은 거 같아요. (웃음) 조급해하기 보다는 준비가 되면 알아서 잘 되지 않을까요? 연기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주인공하면 뭐해요. 또 작품이 대박나면 뭐하나 싶어요. 그게 끝이잖아요. 누가 봐도 ‘될만해서 됐다’ 싶을 때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디자인/최송이

star bag

할배들 짐꾼으로 변신

배우 **최지우**가 tvN ‘꽃보다 할배’의 짐꾼이 됐다. 그는 그리스편 촬영을 위해 이순재·신구·박근형·백일섭·이서진과 함께 15일 오후 출국했다. 제작진은 “짐꾼 이서진을 도와 보조 짐꾼으로서 모든 여행일정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미투어 전 국내 워밍업

3인조 걸그룹 **바버렛츠**가 북미 투어에 앞서 다음달 6일 서울 마포 레진코믹스V홀에서 단독 콘서트 ‘바버렛츠 대모험 출정식’을 연다. 북미 투어를 위해 준비한 무대를 국내 팬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자리다. 다음달 14~15일 캐나다 토론토 단독 공연에 이어 17~20일 미국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한다.

중증건선 알리기 캠페인

김범 외에 킹콩엔터테인먼트 소속 박민우·유연석·윤진이·이광수·이동욱·임주은·조윤희 등이 중증건선과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라디오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단법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주최로 난치성 환우들의 애환과 올바른 질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이돌 패셔니스타 도전기

슈퍼주니어 **김희철**을 비롯해 카라 구하라, 씨스타 보라, EXID 하니가 KBS2 ‘어 스타일 포 유(A Style For You)’의 진행자가 됐다. MC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진은 “시청자와 소통하는 쌍방향 스타일 쇼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 방송 예정.

스폰지밥 3D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모데카이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쎄시봉

'조선명탐정' 볼까 '스폰지밥' 만날까

설연휴 5일… 스크린 상차림 푸짐

또 다시 설 연휴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까지 포함해 5일 동안 이어진다. 연휴가 긴 만큼 극장을 찾는 관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새해 첫 극장가 대목을 잡기 위한 영화들의 흥행 경쟁도 치열하다. 올해 설 연휴 극장가 흥행 대결은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하 '조선명탐정2')과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킹스맨')의 2파전이 예상된다.

'조선명탐정2'는 불량은괴 유통사건과 여자 아이의 실종 사건을 동시에 다루게 된 탐정과 그 조력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김명민·오달수 콤비의 코믹한 연기, 코미디·추리·사극이 뒤섞인 장르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다. '킹스맨'은 불량 청년에서 비밀 첩보원으로 거듭나는 주인공의 이야기다. 다소 폭력적이지만 액션의 쾌감과 위트 있는 유머가 젊은 관객층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1970년대 음악 감상실 쎄시봉을 배경으로 한 멜로영화 '쎄시봉'의 약진도 기대해볼만 하다. 베네딕트 컴버배치·키이라 나이틀리 주연의 드라마 '이미테이션 게임', 조니 뎁·기네스 팰트로우·이완 맥그리거 주연의 코미디 영화 '모데카이'는 각각 17일과 18일에 개봉해 흥행 대결에 동참한다.

다양성영화도 풍성하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인 '폭스캐처'와 벨 앤 세바스찬의 리더 스튜어트 머독이 감독한 '갓 헬프 더 걸'은 일찌감치 개봉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언터처블: 1%의 우정' 제작진이 뭉친 '웰컴, 삼바', 전 세계 56개 영화제를 석권한 '이다'는 18일 개봉한다.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도 있다. 인기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이 눈에 띈다. '도라에몽: 스탠바이미'는 지난 12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시리즈 최초로 3D CG로 제작된 화제작이다. '스폰지밥3D'는 오는 18일 개봉한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작품으로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재개봉해 설 연휴 기간 관객과 만난다. 이밖에도 '오즈의 마법사: 돌아온 도로시' '명탐정 코난: 코난 실종사건-사상 최악의 이틀' '옐로우버드' 등을 설 연휴 기간 만날 수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HOT PHOTO

한복 곱게 차려입은 '여자친구'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가 설날을 맞아 새해 인사를 전했다. 여자친구는 공식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새해 인사 영상 메시지를 16일 오전 0시 공개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들은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세배를 했다. /김지민기자

KBS2 주말극 또 가족이야기

'파랑새의 집' 21일 첫방…이준혁 "취업 고민하는 준비생"

배우 이준혁이 KBS2 새 주말극 '파랑새의 집'에 출연한다.

이준혁은 '파랑새의 집'에서 이력서만 100개째 제출 중인 성실한 취업준비생 김지완 역을 맡았다.

16일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이준혁은 "평범하고 부족한 게 매력"이라며 "극이 진행될수록 인물이 성장하는 걸 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지완을 따라 나도 함께 성장할 것 같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이어 "전작에선 캐릭터 나이가 실제보다 많았지만, 이번엔 28세로 젊어져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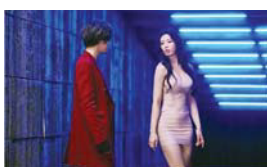
이준혁의 엄마로는 배우 최명길이 출연한다. 한선희로 분한 최명길은 희생적인 어머니로 변신해 SBS 월화극 '펀치' 속 권력을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윤지숙 법무부 장관과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파랑새의 집'은 5포세대(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 부모님 전상서를 콘셉트로 가슴 아픈 청춘의 자화상을 이야기한다. '가족끼리 왜이래' 후속 작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이준혁과 엄마 역을 맡은 최명길.

온라인 핫 이슈

모델 유승옥, 니엘의 '못된 여친'

모델 유승옥이 그룹 틴탑의 니엘의 연인으로 변신했다.

니엘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솔로 앨범 '온리엘(oNIELy)'의 타이틀곡 '못된 여자'의 뮤직비디오를 16일 오전 0시 공개했다.

뮤직비디오에서 니엘의 연인 역할로 등장한 유승옥은 몸에 밀착되는 원피스와 짧은 탱크톱 등 과감한 의상으로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유승옥은 키 172㎝, 가슴둘레 35인치, 허리 23.5인치, 엉덩이 둘레 36.5인치의 완벽한 몸매를 자랑한다. /김지민기자

강남 '한류 얼굴' 됐다

CJ 한류컨벤션 '케이콘' LA 이어 일본 확대

M.I.B. 강남(본명 나메카와 야스오)이 CJ E&M의 한류 컨벤션 '케이콘(KCON)'의 얼굴이 됐다.

CJ E&M은 매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한 '케이콘'의 개최지를 확대해 올해부터 일본에서도 개최하며 미국 동부 지역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케이콘'은 4월 22일 일본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된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열리는 '케이콘 2015 재팬'은 '한류의 모든 것'을 주제로 케이팝, 뷰티, 패션, 음식 등 한국 문화는 물론 관련 산업 제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케이팝 커버 댄스 경영대회, 메이크업 체험, 한국어 강좌 등 풍성한 케이컬쳐(K-Culture) 콘텐츠와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다양한 컨벤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CJ E&M은 "일본은 전통적인 한류 강세 시장이나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행사가 부족했다"며 "케이팝을 핵심 콘텐츠로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을 집약적으로 소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메시 해트트릭…시즌 26골

득점선두 호날두 2골 차 압박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득점 경쟁에 불을 붙였다.

메시는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누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23라운드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3골을 몰아쳤다.

전반 17분 네이마르의 골을 어시스트해 몸을 푼 메시는 전반 38분 첫 골을 시작으로 후반 14분 추가골과 후반 20분 페널티킥까지 성공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이로써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31번째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올 시즌 리그 26골을 기록했다. 득점 1위 호날두(28골)와는 2골 차다.

메시의 활약을 앞세워 바르셀로나는 레반테를 5-0으로 대파했다. 11연승을 달린 바르셀로나는 승점 56을 쌓으며 선두 레알 마드리드(승점 57)를 바짝 압박했다. /김민준기자

박병호 홍백전 솔로포 '손맛'

팀내 홀로 멀티히트 예열

올 시즌 뒤 해외 진출 자격을 얻는 '거포' 박병호(29·넥센 히어로즈·사진)가 스프링캠프에서 짜릿한 손맛을 봤다.

박병호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서프라이즈에서 열린 넥센의 스프링캠프 자체 홍백전에서 백팀의 4번 타자 겸 3루수로 나서 백팀이 3-0으로 앞선 4회 쐐기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다. 백팀의 4-0 승.

박병호는 1회 중전 안타를 포함해 2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1볼넷을 기록하며 홍백전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작성했다.

홍팀은 올해 불펜 투수에서 선발로 전향하는 한현희에게 선발을 맡겼다. 한현희는 2이닝 동안 12타자를 맞아 안타 6개와 폭투 1개로 3실점하고 패전투수가 됐다. 3회부터 오른 하영민은 유일한 피안타를 박병호의 홈런으로 내줬다. 마정길, 신명수, 최원태는 1이닝씩을 실점 없이 던졌다. /김민준기자

스네데커, PGA 페블비치 프로암 우승

브랜트 스네데커(미국·사진)가 2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에서 우승했다.

스네데커는 16일(한국시간) 페블비치 골프링크스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 잡는 깔끔한 플레이로, 최종합계 22언더파 265타를 기록했다. 2위 닉 와트니(19언더파)와는 3타 차다. 이로써 스네데커는 개인 통산 7번째 PGA 투어 우승을 기록했다.

한국 선수로는 '루키' 김민휘(23)가 공동 21위(13언더파)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왼쪽부터 삼성 조동찬, 한화 정근우, 두산 노경은.

스프링캠프 '부상 경계령'

삼성 조동찬·한화 정근우·두산 노경은 등 핵심전력 이탈

프로야구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스프링캠프에서 '부상주의보'가 발령됐다.

10개 구단들은 시즌 준비를 위해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따뜻한 나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 소식에 울상이다.

먼저 삼성 라이온즈의 내야수 핵심자원인 조동찬이 쓰러졌다. 지난해 스프링캠프에서 왼쪽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조동찬은 지난 9일 같은 부위에 통증을 느껴 조기 귀국했다. 삼성은 직접적인 부상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결과에 따라 오키나와 캠프 재합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삼성은 조동찬 외에도 진갑용(허리), 채태인(왼 무릎) 등이 경미한 부상으로 한동안 팀훈련을 함께 하지 못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27일 1차 캠프인 괌에서 훈련중 허리 통증으로 조기 귀국한 에이스 윤성환이 국내 치료를 마치고 2차 캠프지인 오키나와로 합류해 한숨을 돌렸다.

일본 고치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는 14일 '내야의 핵' 정근우의 부상 소식에 가슴을 졸였다. 정근우는 1루수가 송구한 공에 아래 턱 부위를 맞아 하악골(아래턱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수술까지 가는 상황은 피했지만 개막전 출전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성근 감독은 "전력의 반을 잃었다"며 정근우의 부상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훈련하는 두산 베어스도 15일 투수 노경은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노경은은 실전 투구를 하는 도중 타구에 얼굴을 맞았다. 검사 결과 턱관절에 미세골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나 턱에 금이 간 부위를 와이어로 고정하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김태형 두산 감독은 붙박이 마무리 이용찬이 입대로 떠난 자리를 노경은으로 메운다는 계획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밖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박준서(발목)와 SK 와이번스의 윤길현(햄스트링) 등도 경미한 부상에 시달렸다.

스프링캠프는 새 시즌을 시작하면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기량을 다듬는 자리다. 하지만 부상을 당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각 구단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무조건 공격해>

최용수 감독 "올해 FC서울 '무공해' 축구다"

오늘 AFC 플레이오프

"공격 본능 갖춘 FC서울 기대하세요."

최용수 FC서울 감독이 16일 하노이 T&T(베트남)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FC서울의 공격 성향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수비적인 실리축구를 했지만 올해 우리는 서울의 원래 색깔, '무공해 축구'를 되찾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무공해(무조건 공격해)'를 모토로 내걸었다. 이어 "내일 하노이와의 경기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태극마크를 반납한 차두리는 "떠날 때 팀 동료로부터 꼭 필요한 선수, 좋은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축구 팬들이 K리그의 가치를 인식하고 응원하러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용수 FC서울 감독과 차두리가 16일 하노이 T&T와의 2015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은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하노이와 단판 승부로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승자는 H조에 편성돼 광저우 헝다(중국), 웨스턴 시드니(호주), 가시마 앤틀러스(일본)와 16강 진출을 놓고 조별리그에 들어간다. /김민준기자

IMF가 보내는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기자 수첩
김 민 지
<경제부 차장대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경제의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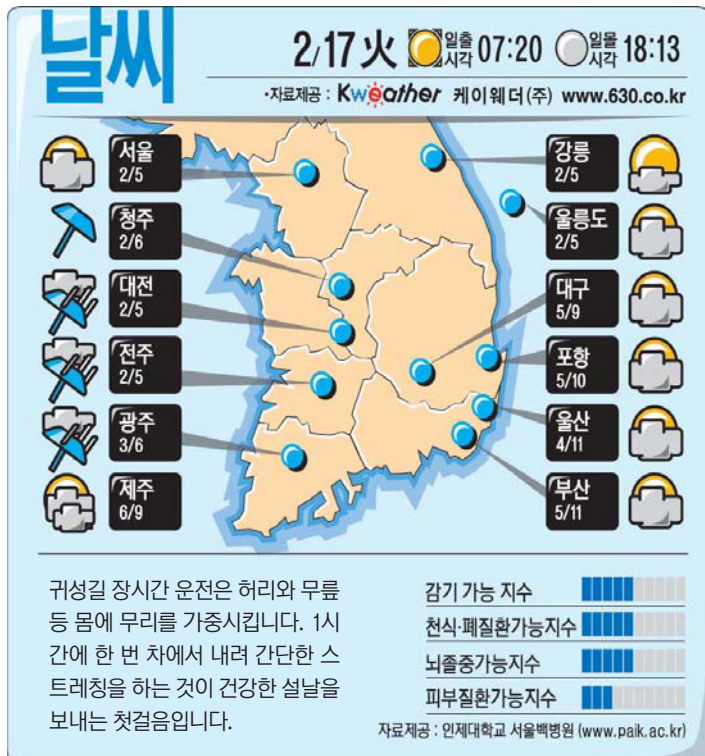
한국에 온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13일 내놓은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에서는 수출 제조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 모델이 향후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점도 IMF는 지적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향후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면 소비 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하고, 저인플레이션, 저성장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가구의 소비성향은 72.9%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소비성향은 지난 2003년만 해도 77.9%나 됐지만 연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0만6000원으로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IMF 측은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발생한다면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애잇큰 IMF 협의단장은 "디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라며 "한 분기 정도 더 추세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IMF의 경고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제대로 된 정책으로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더 암울한 시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우리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IMF 관리체제'를 통해 국가 경제가 초토화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때문에 IMF의 경고를 절대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우선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면한 4대 구조개혁에 실패해 경제 모멘텀을 살려가지 못하면 제2, 제3의 IMF 경제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또 과감한 규제 철폐로 비제조업과 내수업을 키워야 한다. 때를 놓치면 안된다. 지금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액션'이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3		4		
			1		7	3		
6				8		1	9	2
	2						4	
1	3	9		2				5
		7	9		2			
		2		5				
4	9							

				1	9	5	2	
9	1						6	
2								9
		4		9	1			
			6	2	4			
			8	7		9		
6								7
	7						1	8
	8	5	2	4				

스도쿠 정답

7	1	3	4	6	5	2	8	9
9	5	6	2	3	8	4	1	7
2	4	8	1	9	7	3	5	6
6	7	4	5	8	3	1	9	2
8	2	5	6	1	9	7	4	3
1	3	9	7	2	4	8	6	5
5	8	7	9	4	2	6	3	1
3	6	2	8	5	1	9	7	4
4	9	1	3	7	6	5	2	8

4	6	8	7	1	9	5	2	3
9	1	7	3	5	2	8	6	4
2	5	3	4	8	6	1	7	9
7	3	4	5	9	1	6	8	2
8	9	1	6	2	4	7	3	5
5	2	6	8	7	3	9	4	1
6	4	9	1	3	8	2	5	7
3	7	2	9	6	5	4	1	8
1	8	5	2	4	7	3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퇴사 당한 후 그 회사서 소송까지 준비중 득보다 실이 많아… 타협점 찾는데 노력

사이렌 여자 생년월일 비공개 요청

Q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여 글을 올립니다. 작년 이 맘 때쯤에 무역회사 재직 중인데 해외출장도 할 수 있는 무역회사로 이직을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었는데, 옮겨봤자 별거 없고 가정불화도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와 다를 바 없이 퇴사하고 그 회사에서는 제게 소송까지 하여 현재 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곤 하네요. 소송은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런지요? 나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회사 입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직운이 있는지요?

A 2015년도는 가정의 불화를 포함하여 직장, 돈과의 구설이 이어지니 마음이 아프고 애처롭습니다. 생일 비공개의 귀하와 함께 사주 속으로 독자 분들께 참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겠습니다. 사주와 운세에서 충돌되는 살의 기운을 병법으로 인용해 본다면 보급(補給)을 막으니 군신(君臣)간을 막아 다 된 일을 좌절시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격각(隔角)이 되어 진격하는 군대의 앞을 가로막는 성벽이나 강물과 같으니 이래저래 장애(障碍)가 되는 것입니다. 중단수의 발동이라 시험의 낙방, 승진의 좌절, 관재구설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되는데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게 많으니 타협점을 찾아야할 것입니다. 2015년 귀하의 운은 좋은 것보다는 흉함의 세기가 더 강하므로 만사 자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력 2월 지나 다소 쇠퇴하던 기운이 활기를 찾으니 기운을 내십시오. 3~5월은 지출이 많이 하니 돈의 출혈이 일게 되고 7월 지나면서 합치점이 생깁니다. 그러니 7월까지 가지 말고 구정 지나면서 문제를 찾아 소통을 해야 합니다.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종내는 잃는 것이 생각보다 더 많게 됩니다. 2015년 을미(乙未)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항상 신중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보면 아무 노력도 없이 잘 되고 손을 놓고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운이 나쁘고 사주의 기운이 부족할수록 불평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보편적 일반 사람들은 불평하고 이동하려하기에 다투고 싸우기도 하고 빗보이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발 물러서서 미리 예측된 사항에 대하여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17일 (음 12월 2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운이 좋지만 자만해선 안됩니다. **60년생** 아랫사람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72년생**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4년생** 기운이 앞서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49년생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1년생** 서두르지 않아도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지만 너무 기대하진 마세요. **85년생** 친구들과 만나면 즐겁습니다.

50년생 귀인이 찾아왔는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62년생** 부모와 가족을 좀 더 챙기세요. **74년생** 몸관리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합니다. **86년생** 이성이나 친구의 제안을 조심하는게 필요합니다.

51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입니다. **63년생** 요령 피우면 나만 손해볼 수 있습니다. **75년생** 일을 추진할 때 주위의 조언을 구하세요. **87년생**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만나보세요.

52년생 운이 길하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64년생** 주위의 기대를 받게 됩니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88년생** 신중히 행동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3년생 스트레스가 많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65년생** 일을 해도 다른 일이 계속 생깁니다. **77년생** 저녁 약속은 뒤로 미루는게 좋습니다. **89년생** 주위를 챙길수록 더 큰 즐거움이 생깁니다.

54년생 긴장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6년생** 따지는 것보다는 참는게 좋습니다. **78년생**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90년생** 신중하게 나중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5년생 봄기운처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7년생** 명예와 재물이 좋은 하루입니다. **79년생** 외출이나 여행하기에 좋은 하루입니다. **91년생** 계획하고 노력하던 일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56년생 원만한 복이 있으니 기분이 좋습니다. **68년생** 다투면 손해보니 피하는게 좋습니다. **80년생** 운이 좋지는 않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92년생** 윗분에게 칭찬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년생 편안하고 자신감이 충만하는 하루입니다. **69년생** 능력이 발휘되니 능률도 좋습니다. **81년생** 실행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더 필요합니다. **93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58년생 계획하던 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0년생 겸손하게 대응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82년생** 다른 일보다 본업에 충실하세요. **94년생** 음식물에 주의하는게 좋습니다.

59년생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는게 좋습니다. **71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83년생**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5년생**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의 결과가 좋습니다.

서울 도심 공원에 가면 설 연휴 전통놀이 '얼쑤'

서울시는 설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체험형 행사와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흥선대원군의 사가이자 고종의 잠저였던 운현궁에서는 18~20일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따뜻한 음료 나누기, 차례상 차리기 해설 행사가 진행된다.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19~21일 떡국 나누기, 차례상 해설, 공연 등 새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 체험관에서는 연휴기간 내내 한지손거울, 하회탈, 청사초롱 만들기 등 11개의 체험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박물관과 유적지에서 각종 전시회를 즐기며 역사공부도 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일 박물관 문화행사 '설맞이 한마당'을 연다. 로비에서는 탈북 전 북한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북한 전통무용과 아코디언 연주가, 강당에서는 시청각 장애인도 즐길 수 있게 가족영화 '7번방의 선물' 배리어프리(barrier-free) 버전이 준비돼 있다.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를 즐길 수 있고 5000~6000원의 참가비를 내면 토기나 움집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내 11개 공원에서도 전통놀이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낙산공원은 20~22일 '의기양양 설맞이 축제'를 열어 보물찾기와 떡메치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남산공원 호현당에서는 전문가의 지도로 가족과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우리가족 설놀이'가 18~22일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17~22일 기간에 10~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삼청각에서는 판소리 춘향가를 재구성한 신개념 춘향가 '진찬춘향'을 19~20일 낮 12시에 선보인다.

/조현정기자 jhj@

"노로바이러스 장염 주의"

식약처, 안전한 명절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안전하고 건강한 설연휴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품·의약품 정보를 16일 소개했다.

먼저 명절기간에는 무엇보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장염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나타나는 식중독은 음식물 섭취와 사람 간 전파로도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한편 음식을 조리하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패류는 익혀 먹는 것이 좋으며 날씨가 춥다고 베란다 등에 음식을 보관하는 것도 피해야한다. 아울러 햇빛 때문에 음식 온도가 상승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쉽게 상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와 함께 차례를 지내고 남은 밤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실내에 그대로 노출해 보관하면 불포화지방산이 파괴돼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외부 공기와 습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밀폐용기나 지퍼백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게다가 사과와 배, 감과 같은 제수용 과일은 에틸렌 가스를 방출해 냉장고 등 밀폐된 장소에서 다른 과일이나 음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진 고기 역시 부패 속도가 빨라 구입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밀봉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냉동 보관을 할 경우에는 2주 내에 섭취해야 한다.

귀성길에 자주 복용하는 멀미약은 승차 30분~1시간 전에 복용해야 하며 패치는 최소한 4시간 전에 붙여야 한다. 멀미약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며 어린이가 패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용'을 확인해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6일 서울 성동구 구립용답어린이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원아들이 어르신들께 세배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143개 대학 신입생 9000여명 추가모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결원이 생긴 143개 대학이 908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부터 23일까지 대학별 원서접수와 사정이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24일 오후 9시까지다. 25일은 합격자 등록만 받는다.

수시 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나 전문대 지원자는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수시·정시 모집과 달리 추가 모집에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추가 모집 실시 대학과 모집 인원은 정시 모집 미등록 충원 결과에 따라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조현정기자

인 사

■ 산업통상자원부

◇ 과장급 전보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안세진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권혜진

■ 국방부

◇ 국장급 임용 ▲ 국방교육정책관 서형석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 장애인고용과장 김수영 ▲ 산재보상정책과장 노길준

◇ 과장급 파견 ▲ 청년위원회 민길수 ▲ 청년위원회 조정숙

■ 해양수산부

◇ 국장급 주재관 및 교육파견 ▲ 주(駐)영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박준영 ▲ 해수부 조승환 ▲ 국립외교원 최준욱

■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민성심

◇서기관 승진 ▲부패심사과 하홍순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고영창

■ KT&G

◇승 진

[부사장] ▲생산R&D부문장 겸 전략기획본부장 백복인

[전 무] ▲영업본부장 장정식 ▲지원본부장 김흥렬 ▲남서울본부장 겸 북서울본부장 남중범

[상 무] ▲지속경영실장 이상학 ▲인사실장 조남웅 ▲전략기획실장 이창효 ▲대구본부장 겸 경북본부장 이흥주 ▲중국지사장 권순택

◇전보

[전무] ▲부산본부장 겸 경남본부장 김재수

[상무/상무급] ▲마케팅본부장 오치범 ▲CR본부장 김태섭 ▲원료본부장 김현진 ▲ R&D본부장 박재민 ▲글로벌본부(CIC)장 방경만 ▲R&D부본부장 겸 제품연구소장 나도영 ▲브랜드실장 임왕섭 ▲영업기획실장 이정진 ▲인재개발원장 겸 HR혁신실장 홍석환 ▲IT실장 정성헌 ▲해외생산실장 강훈구 ▲원료관리실장 신송호 ▲기술연구소장 김종열 ▲분석연구소장 김효근 ▲글로벌본부(CIC) 실장 도학영 ▲사업관리실장 김건태 ▲부동산사업실장 겸 물류혁신팀장 김진민 ▲윤리경영실장 김삼수 ▲인천본부장 겸 경기본부장 박창현 ▲전남본부장 겸 전북본부장 고경찬 ▲충남본부장 김효성 ▲충북본부장 이택동 ▲영주공장장 김대영 ▲광주공장장 김용덕 ▲천안공장장 신성식 ▲김천공장장 김영기 ▲북서울본부 종로지사장 이승우 ▲신탄진공장 운영실장 변원균

[지사장] ▲영등포지사장 강덕원 ▲성남지사장 박정일 ▲북부지사장 강철구 ▲북인천지사장 현길홍

[부장/지점장급] ▲시장관리부장 백운승 ▲인사이트부장 문성환 ▲에쎄팀장 박성식 ▲레종팀장 정윤식 ▲디스팀장 김기수 ▲영업개발부장 이춘호 ▲광고관리부장 최광표 ▲리더십교육부장 김겸환 ▲e-Learning부장 이영문 ▲복리후생부장 권호동 ▲HR혁신부장 김진철 ▲IT운영2부장 윤광석 ▲세무부장 김용석 ▲공장관리부장 정강옥 ▲공정개선부장 정덕재 ▲제품품질부장 김정후 ▲재료품질부장 김종오 ▲해외원료부장 정성윤 ▲국내원료부장 한용환 ▲해외지원부장 권오준 ▲해외영업3부장 김남권 ▲해외영업4부장 이응출 ▲러시아법인 지원팀장 현주석 ▲이란법인장 최규영 ▲이란법인 생산팀장 장인석 ▲전략기획부장 유성신 ▲사업3부장 이웅규 ▲투자관리부장 박준용 ▲건설사업부장 신문수 ▲개발사업부장 김장한 ◈ 남서울본부 ▲강남지사 시장관리부장 김주성 ▲강서지점장 이병태 ▲남양주지점장 임장혁 ▲양평지점장 주상종 ▲북서울본부 영업부장 전형순 ▲종로지사 시장관리부장 김덕교 ▲동대문지점장 범웅균 ▲성동지점장 이근우 ▲서부지점장 지훈 ▲마포지점장 박진우 ▲성북지점장 김웅규 ▲고양지점장 윤한 ▲의정부지점장 김영구 ▲포천지점장 손병철 ▲파주지점장 유병윤 ▲부산본부 영업부장 겸 남부지점장 신기현 ▲부산진지점장 손의곤 ▲중부산지점장 김혁 ▲북부산지점장 김대근 ▲양산지점장 최광준 ▲거제지점장 이태영 ▲밀양지점장 전재일 ▲서대구지점장 최상욱 ▲남대구지점장 강정희 ▲포항지점장 김준경 ▲경산지점장 최한영 ▲구미지점장 권순조 ▲달성지점장 서유승 ▲칠곡지점장 김창동 ▲영천지점장 박종관 ▲김천지점장 김성실 ▲인천본부 영업부장 이재한 ▲인천지점장 박유영 ▲남인천지점장 김해준 ▲부천지점장 고상윤 ▲김포지점장 윤성보 ▲광명지점장 하금숙 ▲경기본부 영업부장 유원식 ▲화성지점장 나기석 ▲이천지점장 이현호 ▲오산지점장 정미선 ▲광주지점장 이병수 ▲안성지점장 조병호 ▲광주지점장 최재영 ▲순천지점장 박찬원 ▲여수지점장 김봉균 ▲고흥지점장 이창훈 ▲나주지점장 김미희 ▲해남지점장 김제용 ▲장흥지점장 장상성 ▲광양지점장 송석종 ▲서산지점장 이광은 ▲아산지점장 정성교 ▲천안지점장 이동열 ▲공주지점장 이상록 ▲세종지점장 임명순 ▲경남본부 영업부장 황성호 ▲창원지점장 강광옥 ▲마산지점장 김판규 ▲진주지점장 우창국 ▲통영지점장 박희용 ▲사천지점장 민필규 ▲거창지점장 하한수 ▲하동남해지점장 문왕열 ▲강원본부 영업부장 윤동길 ▲원주지점장 최종철 ▲강릉지점장 김상열 ▲홍천지점장 정명환 ▲삼척지점장 정연흥 ▲충주지점장 노대경 ▲제천지점장 김재학 ▲옥천지점장 성중원 ▲음성지점장 민규동 ▲군산지점장 박병기 ▲익산지점장 김지욱 ▲정읍지점장 공봉환 ▲김제지점장 송탁규 ▲남원지점장 장덕주 ▲무주지점장 탁무선 ▲안동지점장 이명진 ▲영주지점장 박시응 ▲의성지점장 이운수 ▲상주지점장 지주태 ▲영덕지점장 김용기 ▲울진지점장 김장연 ▲제주지점장 고영철

부 고

▲ 유청형씨 별세, 이종훈(공간정보기술 부사장)·종호(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종일(덕성여자대학교 교수)·종화·종문씨 모친상, 백윤수(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본부장)·여준구(KIST 로봇·미디어 연구소 소장)씨 장모상, 장경실 씨 시모상 = 15일 오후 7시 57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 발인 18일 오전 7시. 02-2227-7580.

▲ 김태진씨 별세, 윤재길(청주시 부시장)씨 장인상 = 15일 오후 5시 50분, 청주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43-224-2898

▲ 박종석(청산기획 대표)씨 별세, 양경숙씨 남편상, 박진선(SBS 변호사)·지훈·미란씨 부친상 = 16일 오전 1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 이택수 씨 별세, 이현동(MBC 디지털기술국 TV송출부 부장) 씨 부친상 = 16일,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8일 053-650-4444

귀성, 18일 오전 피하세요

귀경, 19일 오후 가장 막힐 듯… 우회도로 이용 효과적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귀성은 18일 오전, 귀경은 설 당일인 19일 오후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귀경이 이어질 21일과 22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귀경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부는 귀성 최대 소요시간이 서울→부산 7시간20분·서울→광주 6시간40분이며,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30분·광주→서울 6시간 등으로 지난해보다 귀성은 약 30분 늘고 귀경은 약 20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속도로 우회하면 시간 단축

국토교통부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으로 유명한 팅크웨어가 최근 2년간 명절기간의 교통정보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정체가 심할 때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46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을 39번과 82번 국도 등으로 우회하면 이동시간이 46분 줄어들며 경부고속도로의 양재~안성 구간을 우회해 용인서울고속도로와 311번 지방도 등을 이용했을 때는 23분이 감소했다. 게다가 영동고속도로는 신갈~여주 구간 대신 국도 42호선을 타면 더 빨리 고향에 갈 수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하남~오창 구간은 43번 국도와 17번 국도 등의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7일 오후 9시 이후 서울 혼잡 줄어

서울시는 17일 오후 9시 이후나 18일 오후 3시 이후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심한 혼잡을 피해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17일부터 이틀간은 경부고속도로(한남~양재)를 통해 가장 빠르게 서울을 빠져나갈 수 있다. 다만 경부·서해안 등 고속도로 소통상황을 확인한 후 집을 나서는 게 현명하다.

설 당일은 서울시내에서 차례를 지내고 근거리에 있는 친지를 방문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차량과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민 위한 귀성길에 총력

국토부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1일 평균 ▲철도 70회 ▲고속버스 1887회 ▲항공기 25편 ▲여객선 142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도 증강했다.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통정보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종합교통정보안내(1333)와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도 운영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국내서 유통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의 함량이 제멋대로 들어간 가짜 약을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친형제를 붙잡았다. 사진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가짜 제품. /연합뉴스

옛 통진당, 헌재에 해산 재심

"의원직 상실 부당" 주장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10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 결정을 취소하고 법무부의 기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재심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다.

대리인단은 소장을 통해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을 결정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옛 통진당은 지난달 6일께 헌재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조현정기자

대검 과학수사부 출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P)에서 과학수사부 출범식이 열렸다. 검사 6명과 전문인력 124명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 재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철거 작업이 16일 이뤄졌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법원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 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1개 중대와 소방차 2대, 구급차 1대도 배치됐으나 마을 주민들은 특별한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법원의 관결을 존중해 집단적 철거 등 방해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반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구는 구룡마을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결국 철거가 재개됐다.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해 9월 사업구역 고시가 실효돼 사실상 무산됐다. /조현정기자 jh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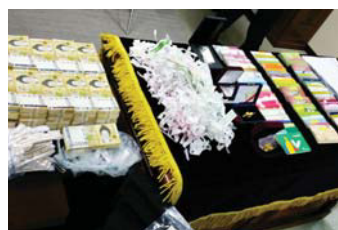
2700억원대 한전 입찰비리 적발

10년간 시스템 조작 등으로 134억원 챙겨

한전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2700억원대 공사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16일 입찰시스템을 조작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 등 한전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업자들을 모아 박씨 등에게 연결해 준 주모(40)씨 등 공사업자 총책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4명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83개 업체 133건(계약금액 2709억원)의 공사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씨 등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뒷돈은 공사 대금의 1~10% 가량의 '커미션' 명목으로 1인당 6억~83억원씩 모두 1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은 한전KDN 파견 근무가 끝날 무렵에는 지인을 입사시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전KDN이나 한전에서 불법 사실을 알았는지 조사하는 한편 추가로 비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수십억원대의 현금과 예금 등을 추징해 범죄수익 134억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